

飼料부문

배합사료 원료의 충분한 확보로 가격안정화 예상

허 현 도 / 농수산부 축산국 사료과장

주소 : 서울시중로구세종로 77 정부종합청사

1. 飼料需給 規模의 擴大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과거에는 농가 부산물과 농가의 유희노동력에 의존하는 재래식 영세(宥細)부업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국민소득수준의 급격한 향상과 국민 식생활 패턴(pattern)의 변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단백질 식품인 축산물 수요에 대처코자 전업 또는 기업형태의 전문적 산업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으며 가축사료의 수급규모 역시 계속 확대되어왔다.

이에 따라 농후사료의 수요가 증가되어 사료원료의 도입이 물량면에서 크게 늘어 나게 되었으며 기업적 양제, 양돈업이 육성 발전함으로써 배합사료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 72년~77년까지의 배합사료 수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공급량이 72년의 776천M/T에서 77년에는 1,820천M/T으로 무려 234%가 증가하였다.

배합사료 수급실적

단위 : 천톤

區 分	'72	'73	'74	'75	'76	'77
배합사료 생산량	776	910	927	901	1,381	1,820
전년대비증감율(%)	111	117	102	97	153	132

2. 78년도 양계사료 수급전망

가 '78 배합사료 수급계획

78년도 사료수급계획은 기본방침을

첫째, 가축사육두수 및 양축규모 확대 농가 증가로 유통대상물량을 77년의 75%에서 81%로 증가 조정하고

둘째, 녹사료, 저장사료와 조사료등 국내부족자원의 최대한 개발 활용과 부족되는 배합사료 원료의 적기도입(導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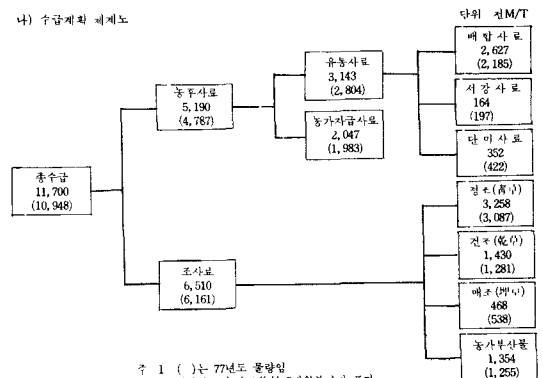
세째, 차년이월물량을 1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예비용 1개월분을 포함한 충분한 물량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농후사료 5,190천M/T, 조사료 6,510천M/T, 총

'78 사료수급 계획(추정)

가) 총괄 단위 : 천M/T

구분	당년수요	차년이월	합계
농후사료	4,803	387	5,190
곡 류	1,628	342	1,970
강 류	1,732	—	1,732
박 류	258	41	299
어 분	96	4	100
무기물	133	—	133
기 타	956	—	956
조 사 료	6,510	—	6,510
합 계	11,313	38.7	11,700

나) 수급계획 체제도



주 1 ()는 77년도 불합입
2 배합사료에 조사료 3개월분까지 포함

신년특집 / 78年度 양계업을 내다본다

계 11,700천M/T으로 하고 78년도 당년분 배합사료 생산계획을 2,240천M/T(에비용 1개 일분 포함)으로 추정하였다.

78년도 사료수급계획의 특징은 종래의 배합사료원료 사용실적과 소맥수입의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배합사료의 원료배합비율을 옥수수 등 곡류는 77년의 53%에서 61%로, 상류는 26%에서 18%로 한시적으로 조정하고 박류중 대누박의 비율을 50%에서 60%로 개정함으로써 배합사료의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한다

'78 배합사료 생산계획

단위: 천M/T

구분	당년수요		사년이월	합계
	물량	추정비		
곡류	1,368	61.0%	342	1,710
상류	403	18.0	—	403
박류	246	11.0	41	287
기타	92	4.1	4	96
합계	2,240	100	387	2,627

나 78년도 양계사료 수급

사육장당 수급 증가현상에 따라 배합사료 생산을 77년인 1,820천M/T에서 78년에는 2,240천M/T으로 증가 책정하였으며 배합사료의 옥수수 61%인 양계사료 또한 77년말의 28,567천수(10)에서 78년 말에는 13%가 증가한 32,241천수(11)가 될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양계용 배합사료도 77년의 996천M/T에서 34%가 증가한 1,330천M/T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사양면적별로 보면 옥수수사료는 77년 대비 78년에 257천M/T으로 35%가 증가되며 산란사료는 510천M/T으로 30%, 육계 사료는 261천M/T으로 47%를 증가 공급토록 책정하였다.

시외사이 농가에서는 양계사료 수급의 원활을 위하 연료의 공급 안정 및 가격동향을 살피보면,

'78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계획(추정)

단위: M/T

구분		'77	'78	'78/'77
양계사료	육주사료	190,000	257,000	135%
	산란사료	625,800	808,000	130
	육계사료	180,000	264,000	147
	소계	995,800	1,330,000	134
양돈사료		385,000	406,000	105
낙농사료		220,000	307,000	140
비육사료		219,200	174,600	80
기타		32,012	22,400	70
합계		1,820,000	2,240,000	123

옥수수 등 곡류는 821천M/T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전제 배합사료의 곡류 구성비 61%에 비하여 61.7%의 비율로서 곡류 의존도가 양돈, 낙농, 비육사료에 비하여 약간 높게 책정하였다.

옥수수는 국내생산분 181천M/T, 77년에서 이월된 물량 411천M/T을 감안하여 1,281천M/T을 수입하므로써 총 1,692천M/T('79 이월물량분 342천 M/T 포함)을 조달할 계획이므로 옥수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원활하게 공급될 것이다.

옥수수 공급가격은 '75.8.1부터 실시 중인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정 및 운영방침에 따라 '77.8.12에 옥수수의 안정기준가를 C & F M/T당 135불(\$)에서 130불(\$)로 인하조치하고 kg당 공급가격을 71.98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한 바 있으며 78년에도 77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년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소맥피, 탈지강 등 강류는 양계사료로 183천M/T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성비는 13.8%로서 전체 배합사료의 강류 구성비율 18%보다 낮게 하였다.

배합사료용 강류는 매년 1,800천M/T의 소

맥을 수입하므로써 부산물로 생산되는 소맥피로 충당하여 왔으나 지난 77년에 쌀생산에 사상 유례없는 대풍(大豊)으로 41,700천섬을 수확함에 따라 종래의 소맥분으로 생산하던 막걸리를 쌀막걸리로 대체하므로써 소맥수입을 78년에는 1,550천M/T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배합사료용 강류소요량 403천M/T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소맥계분율을 80%에서 77%로 인하여 '77.12.1부터 시행함으로써 소맥피는 25%(수분 함량 관계로 2% 증가됨)로 증가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7분도 쌀도정율 폐지에 따른 탈지강의 33천M/T을 부족되는 배합사료용 강류로의 대체를 추진하므로써 배합사료용 강류수급에 차질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이다.

소맥피 공급가격은 배합사료가격 안정을 위하여 77년에 이어 78년에도 kg당 42.20원의 가격유지로 양측가는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대두박, 채종박 등 박류는 양계사료로 161천M/T의 공급 계획으로 77년의 12.3%, 전체 배합사료중 박류 비율 11%보다 높은 12.1%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식물성 박류의 대종은 대두박으로 다른 박류에 비하여 소화율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45%로서 월등하므로 박류의 60%인 184,500M/T은 대두박으로 충당하도록 현실적으로 조정하였다.

대두박 공급은 국내생산 500M/T, 대두수입에 의한 대두박 제조 또는 대두박의 직접 수입으로 184천M/T을 조달할 계획이다.

채종박, 임자박, 낙화생박 등 기타 식물성 박류는 국내생산분 80천M/T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되는 20천M/T 정도만 외국에서 수입할 것이다.

대두박의 공급가격은 지난 77년 초에는 국제대두시세의 폭등으로 한국사료협회와 동방유량 등 대두박제조업체의 당사자간 협의가격으로 77.4.1부터 kg당 123원을 139원으로 상향(上向) 조정하고 77.7.1부가가치세 실시와 함께 139.70/kg으로 시행되어 있다. 그후 국제대두시세가 미국, 브라질 등 대두의 주생산국들의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으로 하락(下落)하였으며 78년에도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두박 공급가격을 130원 수준으로 인하조정하거나 국제대두시세의 등락폭(騰落幅)이 크을 감안하여 대두박가격 안정기금 설치를 검토 중이다.

78년에는 년중 대두박가격을 평준화하여 kg당 139.70원 또는 그 이하로 공급하고 물량면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것이다.

동물성 단백질인 어분, 육골분 등은 양계사료로 77천M/T을 공급할 것인바 구성비는 5.8%로서 전체 배합사료의 어분 구성비 4.1%에 비하여는 높은 편이나 77년의 양계사료용 어분 구성비 6.4%에 비하여는 낮게 책정하였다.

어분공급은 국내부존자원의 최대한 활용책으로 품질면, 가격면에서 외국산에 비하여 약간 떨어지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될 76천M/T으로 조달하고 부족분 20천M/T('79 이월 물량 4천M/T 포함)만 외국에서 수입할 계획이다.

'78 배합사료 원료공급계획(추정)

구분	생산계획	곡류	강류	박류	어분	무기물
육주사료	257,700	158,060	56,540	24,670	10,790	6,940
산란사료	809,000	487,830	105,980	102,740	40,450	72,000
육계사료	264,000	175,580	20,850	33,530	25,340	8,700
소계(양계사료)	1,330,000	821,470	183,370	160,940	76,580	87,640
양돈사료	406,000	241,160	97,850	38,570	14,620	13,800
낙농사료	307,000	173,450	78,900	33,770	310	20,570
비육사료	174,600	115,230	42,780	8,730	-	7,860
기타	22,400	16,690	-	4,140	-	1,570
합계	2,240,000	1,368,000	402,900	246,150	91,510	131,440

신년특집 / 78年度 양계업을 내다본다

특히 어분, 육골분 등 동물성사료와 대두박 채종박 등 식물성 박류는 상호 함수관계에 있으며 물량조달면에서 조금만 차질이 있어도 가격이 폭등한다는 지난 77년의 경험을 살려 78년에는 국내생산상황을 수산청, 단미사료가 공협회 등을 통하여 예의분석하여 필요시에는 과감한 수입조치로 적기에 적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분가격은 현재 지정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고 등록된 단미사료공장과 배합사료 공장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되는 자유가격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어분단미사료공장과 배합사료 공장간의 장기계약을 적극 권장하여 양자(兩者)를 공히 보호하고 어분가격을 안정시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매월 2회씩 보고되는 어분가격을 분석하여 kg당 252원을 상회할 경우에는 수입을 고려하는 등 배합사료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다.

패각분, 식염, 인산칼슘 등 무기물은 88천 M/T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양계사료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6.6%에 달하고 있다

패각분은 국내생산으로 전망 조달하고 인산칼슘은 78년부터는 불소함량이 0.27% 이하로 하는 양질품을 국내산으로 10천M/T을 생산공급하고 가격조절책으로 2천M/T정도를 수입량으로 책정하였으며 공급가격은 외국산 대비 높은 가격이므로 인하조정하여 공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3. 결 론

급증하는 축산물 수요에 대처하여 배합사료의 수급량도 70년대 초(初)의 1백만M/T에서 78년에는 드디어 2백만M/T을 돌파하여 2,240천M/T을 생산할 계획이며 80년에는 3백만M/T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급증하는 양계사료, 양돈 사료 등 배합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요제는 사료원료의 수급원활과 가격안정이며 나아가 배합사료의 품질향상과 적기 생산공급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같이 78년에는 옥수수, 소맥피, 대두박, 어분 등 배합사료 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풍부하게 공급하고 배합사료 원료가격의 안정화를 지속하므로써 배합사료가격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특히 종전에는 사전에 상공부에 수입 한도 협의의를 받음으로서 적기 수입에 약간의 차질이 발생된 경우도 있었으나 78년부터는 수출입 기별 공고를 개정하여 특별법인 사료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사료원료는 수입한도제를 철폐하므로써 농수산부의 수입계획에 따라 적기에 적량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사료수급 추세에 적응 코자 배합사료 공장도 영세성을 탈피하고 시설의 근대화화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토록하고자 기존 공장은 5년이내에 일산 200M/T이상의 규모로 증설 또는 합병케 하고 신규 공장은 일산 300M/T이상의 규모에 한하여 지역분포상황을 감안하여 허가할 방침이며 시설 근대화를 위하여 78년에는 기히 적립되어 있는 사료가격 안정기금에서 약 39억원을 용자 지원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상으로 78년도 사료시책과 양계사료를 주축으로 한 배합사료 수급전망을 고찰하였는데 무엇보다도 다행한 것은 옥수수, 대두, 소맥 등 가장 중요한 국제사료곡물의 대풍작으로 어려움 없이 필요한 배합사료 원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양계를 경영하는 여러분들은 78년에도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하므로써 개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늘어나는 축산물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므로써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료효율의 제고는 사료의 품질관리가 중요하지만 양축가 여러분들의 사양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부언한다.